

# 癌 治療에 있어서 扶正祛邪法の 運用에 關한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內科學教室

孫彰奎 · 趙鍾寬

## I. 緒 論

癌은 組織의 自律的인 過剩的 成長을 하는 腫瘍中에서 個體에 對하여 이롭지 않을 뿐 아니라 正常組織에 對하여 破壞的인 것을 말하는 데<sup>1)</sup> 治療가 困難하고 人類의 生命과 健康을 深刻하게 위협하고 있다.

癌에 대한 韓醫學의 認識은 B.C 3世紀頃 著述된 內經에 石疝<sup>2)</sup> 骨疽,肉疽<sup>3)</sup> 등으로 記錄된 이래 積聚,癭瘤,臑膈,反胃,疝塊 등으로 表現되어 왔다.<sup>4)</sup>

癌의 治法에 對해서는 歷代로 부터 “堅者削之,結者散之,留者攻之,損者益之”의 4大 方法이 設定되어 왔고<sup>5)</sup> 近來에는 理氣化血,通經活絡,化痰利濕,軟堅散結,解毒止痛,益氣養血,健脾和胃,滋補肝腎 등의 治法이 活用되고 있다.<sup>6,7)</sup>

著者は “素問.評熱病論”<sup>8)</sup>에 “邪之所湊,其氣必虛”와 “素問.刺法論”<sup>9)</sup>에 “正氣存內,邪不可干”의 理論에 根據하여 癌治療面에 있어서의 扶正祛邪法에 關하여 歷代 文獻을 通하여 考察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 II. 本論 및 考察

### 1. 癌 形成에 있어서의 正氣와 邪氣의 役割

韓醫學에서 癌의 發生과 發展은 두가지 要

素에 의하여 決定된다.첫째는 身體內의 正氣가 虛損하여 抗病力이 없음이고, 둘째는 邪氣가 身體에 影響을 주기 때문이다.그러나 疾病 發生의 與否는 最終的으로 身體 自身의 內在 素因에 달려 있다.<sup>10)</sup>

“素問.評熱病論”<sup>11)</sup>에서는 “邪之所湊,其氣必虛”라 했고 “靈樞.百病始生篇”<sup>12)</sup>에서는 “風雨寒熱 不得虛 邪不能 獨傷人”이라 하여 外因은 發病의 條件이 되고 內因이 疾病의 根據가 된다고 하였다.

#### 1) 正氣虛

正氣는 正常 生理 活動 및 體內 抗病 能力으로 理解 된다.正氣의 盛衰는 癌 發生의 與否를 決定한다.正氣가 充實하면 抗病能力이 强하게 되는데 “素問.刺法論”<sup>13)</sup>에서 “正氣存內,邪不可干”이라 하여 正氣가 盛하면 邪氣가 侵入하여도 體內에 머무르거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다.그러나 正氣가 虛弱하고 抗病能力이 低下되면 邪氣가 虛한곳을 타고 들어와 發病하게 되는데 “素問.湯液醕醢論”<sup>14)</sup>에 “正氣弛壞,營泣衛除,故 神去之而病不愈也”라 했고 “難經.五十五難”<sup>15)</sup>에는 “積者 五臟所生 聚者 六腑所成也”라 했다.또 陣<sup>16)</sup>은 “此屬肝脾鬱怒,氣血虧損,名曰乳癌”이라 했고 李<sup>17)</sup>는 “積之成者,正氣不足,以後邪氣去之”라 하여 體內 正氣虛弱이 臟腑.經絡의 機能失調를 招來하여 癌이 發生한다고 하였다.

## 2) 邪氣實

邪氣는 일체 疾病을 일으키는 素因의 總稱으로서 外界의 六淫之邪 및 體內 陰陽失調로 因한 病理 狀態와 病理 產物(瘀血,痰飲)等の 病邪를 指稱한다.<sup>18)</sup>

“素問.玉機眞藏論”<sup>19)</sup>에 “邪氣勝者,正氣衰也,故病甚”이라 했고 “靈樞.口門篇”<sup>20)</sup>에는 “故邪之所在,皆爲不足”, 또한 “素問.評熱病論”<sup>21)</sup>에는 “邪之所湊,其氣必虛”라 하여 邪氣가 人體의 正氣를 弱화시킴으로 癌을 포함한 각종 疾患의 發生要因이 된다고 하였다.

한편 “靈樞.九鍼論”<sup>22)</sup>에는 “四時八風 客于經絡之中,爲瘤病者也”, “靈樞.刺節眞邪篇”<sup>23)</sup>에는 “虛邪之入于身也,深寒與熱相搏,久留而內著,寒勝其熱,即骨疼肉枯”라 했고 “靈樞.百病始生篇”<sup>24)</sup>에는 “積之所生,得寒乃生,厥乃成積也”라하여 八風,寒熱등의 外邪가 癌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또 陸<sup>25)</sup>은 熱飲食과 精志鬱結이, 曹<sup>26)</sup>는 氣滯,瘀血이, 朱<sup>27)</sup>는 痰凝滯에 의하여, “素問.至眞要大論”<sup>28)</sup>에서는 “諸痛瘡痒,皆屬于火”라하여 火(熱毒)에 의하여 癌이 發病된다고 하였다.

以上에서 언급된 內容을 통하여 結論적으로 癌의 發生 過程을 살펴보면, 癌은 體內 正氣가 增強하여 體內 抗病力이 높으면 癌의 發生이 容易치 않으나 만약 體內 正氣가 衰弱하거나 外感 六淫,內傷 七情,飲食 起居등에 影響을 받게되면 臟腑,經絡의 機能이 失調되어 氣滯,瘀血 및 痰凝,毒聚의 病理 現象이 일어나서 癌이 發生되는 것으로 볼수 있다.

## 2. 扶正 培本法

癌의 治療時 正氣가 虛弱하고 邪氣가 減하지 않을때는 扶正 法則을 利用하여 身體를 補益하고 生體의 抵抗力을 增強시켜서 癌의 發展을 抑制 시킨다.<sup>29)</sup>

韓醫學에서는 宋代부터 “正氣를 培養하면 積은 스스로 消滅한다”라는 治法을 提唱 하

였다.일반적으로 癌에는 割除,照射,藥殺의 方法만이 有效한 것으로 믿고 生體內部的 抗病力을 돕는일을 게을리 한다면 癌을 어느정도 治療한다해도 부수적으로 生體의 抗病能力을 破壞하여 疾病治療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sup>30)</sup>

韓醫學의 扶正培本法은 生體의 陰陽,氣血, 經絡,臟腑의 生理機能을 調整增強하고 生體內의 抗疾患力을 充分히 發揮하여 癌細胞를 消滅 또는 抑制하는 것이다.<sup>31)</sup>

韓醫學에서는 正氣內虛를 癌發生과 發展의 基本 原因으로 본다. 이는 內經의 “

”正氣存內,邪不可干“의 理論에 의하여 확립된 것이다.<sup>32)</sup> 後世 醫學者들은 이 學說을 좀더 發展 시켰는데 李<sup>33)</sup>는 “積之成者 正氣不足以後邪去之”라 하였다.

人體의 正氣는 臟腑의 生化에서 來源되고 “內虛”는 先天不足과 後天失調를 말하며 臟에서는 脾와 腎의 兩臟을 指稱한다. 그래서 張<sup>34)</sup>은 “凡脾腎不足及 虛弱失調之因,多有積聚之病”이라 했고 李<sup>35)</sup>는 內經의 “治病必求于本”의 學說을 根據로 “善爲醫者,必責根本,而本有先天後天之辨,先天之本在腎,後天之本在脾”라 하여 培補脾腎을 扶正의 중요한 原則으로 하였다.

### 1) 扶先天之本

腎의 概念을 定義할때 “藏精,主水,納氣,主骨,生水,開竅于耳及二陰”의 폭넓은 作用을 한다고 본다.

精은 人體의 基本物質이며 人體內 여러 活動物質의 基礎가 된다.腎精은 腎氣를 生化하고 “元陰,元陽,眞陰,眞陽”의 意味를 포함하고 있다.이는 腎이 人體의 生長,成熟,防禦,平衡,代謝등 各種 機能에 많은 影響을 끼침을 보여준다.<sup>36)</sup> 또 腎은 免疫과 관계가 밀접한데 脾肺腎등이 모두 免疫과 관계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腎이 根本이 된다.즉 腎의 元氣는 능히 全身 각 組織器官의 生理活動을 推動하고

人體의 生長發育과 生命을 維持해 준다.<sup>37)</sup>

五臟六腑의 氣의 生産도 元氣의 도움에 依存한다.元氣가 充分하고 臟腑의 活動이 充實하면 身體는 健康하지만 만일 先天의 稟賦가 不充分하거나 後天의 調養이 失調하거나 久病으로 損傷되면 이는 모두 元氣가 虛弱한 쪽으로 이르게되고 元氣가 虛弱하면 正氣가 반드시 虛弱하게 되어 抗病力이 떨어짐으로 癌을 포함한 각종 疾病이 發生하게 된다.<sup>38)</sup> 또 "靈樞.營衛生會篇"<sup>39)</sup>에는 "衛出于下焦"라 하여 衛氣는 先天에 根源을 두며 腎中의 元氣로서 生化하고 脾胃의 水穀精微로서 充養되어 生體의 抗病力이 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韓醫學에서의 "培元固本"은 治法의 重大한 原則이 되며 "扶正固本"의 治法에서 "本"이 되는 것은 腎中의 元氣를 指稱함을 알수있다.<sup>40)</sup>

### 2) 扶後天之本

韓醫學에서는 일찌기 脾胃의 重要性에 대하여 言及하고 있는데 "素問.六節藏象論"<sup>41)</sup>에서 "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者 倉고之本,營之居也,名曰器,能化糟粕,轉味而入出者也"라 했고 "素問.平人氣象論"<sup>42)</sup>에서는 "平人之常氣稟於胃,胃者平人之常氣也,人無爲氣曰逆,逆者死"라하여 脾胃가 生命活動의 根源을 供給하여 주는 臟器라고 하였다.脾胃의 役割에 對하여 "素問.經脈別論"<sup>43)</sup>은 體內 營養과 精微로운 物質을 運化,輸布하며 升清降濁을 通하여 氣血化生의 根源이 된다고 하였고 李<sup>44)</sup>는 脾胃의 內傷에 의하여 각종 病이 發生한다고 하였다.

또한 李<sup>45)</sup>는 "胃氣一敗,百藥難施"라했고 "華陀.中藏經"<sup>46)</sup>에는 "胃者人之根本,胃之壯,五臟六腑皆壯也"라 했으며 孫<sup>47)</sup>은 "五臟不足調于胃"라 하여 胃를 治療하는 것이 五臟不足을 治療하는 關鍵이 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脾胃는 營血化生의 根源이 되며 飲食物의 消化,吸收,合成,代謝등에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므로 後天의 本이 된다고 할수 있다.

### 3. 祛邪抗癌法

歷代 癌의 治療에 있어서 堅者削之,結者散之,留者攻之와 現代의 解毒止痛,軟堅散結,化痰利濕,理氣和血,通經活絡 등은 모두 祛邪抗癌法의 範疇에 속한다.<sup>48)</sup>

孫<sup>49)</sup>은 癌의 發生을 人體 臟腑의 陰陽失調,六淫,七情外傷등의 素因에 의한다고 보았다.그리고 이와같은 發病의 內外素因이 體內에서 寒性 혹은 熱性瘀滯를 生産하고 또 一種의 毒을 生産하며 이것이 날마다 蓄積되어 癌이 形成된다고 하였다.이러한 種類의 癌은 불려고 해도 볼수없고 단지 "象"으로 局部및 全身에 表現된다. 그러므로 癌症은 一種의 全身性的 病變이고 腫塊는 局部表現이므로 마땅히 全身과 局部를 把握하여 治本과 治標를 구분하여 使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sup>50)</sup>

또한 그는 人體는 病으로 인하여 虛해지는 경우가 많고 虛로 인해서 病에 이르는 경우는 적으므로 癌治療에 있어서 驅邪를 爲主로 했다.또한 癌의 類型을 8 種으로 나누어 1) 氣滯毒結型 2) 血瘀毒結型 3) 寒瘀毒結型 4) 熱瘀毒結型 5) 虛瘀毒結型 6) 實瘀毒結型 7) 痰濕閉阻毒結型 8) 津枯液燥毒結型으로 分類하였고 그 中 寒瘀毒結型이 癌患者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였다.그러므로 癌症의 治療에서 體內의 毒을 除去하는 것이 必需的의 目的이라 하였으며 張子和의 攻下以驅邪의 理論을 따라서 祛毒,破瘀,攻下法을 使用하고 각종 類型의 癌病을 治療하였다.<sup>51)</sup>

그러나 祛邪抗癌法은 癌除去의 重要한 수단이 되지만 病情을 고려治 양으면 도리어 正氣를 傷하여 病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어느 한쪽을 절대화 해서는 안된다. 즉 祛邪는 扶正에 도움이 되고 이 兩者는 對立과 統一의 關係에 있으므로<sup>52)</sup> 癌治療에 있어서 局部의 癌細胞를 消滅시키는 반면,正氣를 도와주는 扶正의 辨證法的인 關係를 조화롭게 運用해야만 한다.<sup>53)</sup>

#### 4. 扶正祛邪와 免疫

韓醫學에서는 外邪의 侵入을 防禦하는 正氣를 稱하여 衛氣라고 한다.衛氣는 皮膚分肉之間을 行하며 肌表를 護衛하며 汗孔의 開閉를 다스리며 外邪의 作用을 抑制한다.<sup>54)</sup>

“靈樞.本藏篇”<sup>55)</sup>에서는 “衛氣和卽 分肉解利,皮膚調柔,주理緻密의”라하여 衛氣가 皮膚粘膜의 防壁作用을 함을 보여준다.또한 “靈樞.癰疽篇”<sup>56)</sup>은 “寒邪客于經絡之中卽血泣,血泣卽不通,不通卽衛氣歸之,不得復反,故癰腫”이라 하여 만일 衛氣가 虛弱하여 邪氣가 그 虛한 틈을 따라 侵入하면 無力한 衛氣가 邪氣와 더불어 싸우게 되고 邪氣는 強하고 衛氣는 弱하므로 邪氣를 능히 除去하지 못하게 되어 病邪가 體內에 머물게 됨으로 癌을 포함한 각종 疾病이 發生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 韓醫學에서 衛氣는 免疫系統의 防禦作用을 맡고있는 중요한 역할을 擔當함을 알 수 있다.<sup>57)</sup>

邪氣는 免疫平衡을 破壞하며 免疫自穩機能의 素因을 干涉한다. 그 素因은 주로 六淫,疫氣,瘀血,痰濁등의 病邪이다. 그러므로 祛邪에는 祛散風邪,清熱 解毒,活血化痰,滌痰化濁 등의 具體的인 治法이 포괄되며 臨床및 實驗에서 祛邪하는 藥物들은 免疫반응을 抑制하며 免疫平衡을 維持하는 作用을 한다.<sup>58)</sup>

따라서 韓醫學에서의 扶正祛邪는 免疫반응에 작용하여 扶正은 免疫機能을 促進시키고 祛邪는 免疫反應을 抑制시킨다. 즉 扶正과 祛邪는 人體의 免疫機能에 중요한 調節作用을 하며 免疫에 대한 自穩能力을 增強시키는 作用을 한다.<sup>59)</sup>

以上에서 살펴본 結果 疾病治療의 大法則은 扶正과 祛邪인데 이 두가지는 떨어질수없는 不可分의 關係에 있으며 癌治療에 있어서도 “扶正以祛邪”의 方法과 “邪祛正自安”의 方法 즉 扶正祛邪의 適切한 運用이 必要할 것으로 思慮된다.

### Ⅲ. 結 論

5癌의 病因病機에 따른 扶正祛邪法의 運用에 關하여 여러 文獻을 通하여 考察하여 본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癌은 全身性 疾患의 局部的 表現으로 外感六淫및 內傷七情의 邪氣와 人體內 抗病力인 正氣와의 相互 鬭爭의 結果로 나타난다.
2. 癌의 治療에는 內經의 “邪之所湊·其氣必虛·” “正氣存內·邪不可干”의 理論에 根據한 扶正및 祛邪의 大原則을 運用할 수 있다.
3. 扶正法은 人體의 免疫力를 增強시키며 그 중 補脾腎法은 免疫力 提高의 方法으로 活用될 수 있다.
4. 祛邪法은 免疫反應을 抑制하며 그 중 清熱解毒·軟堅散結·化痰利濕 通經活絡등 法은 免疫反應 抑制 目的으로 活用할 수 있다.
5. 癌 治療에 있어서 扶正과 祛邪의 適切한 運用은 免疫機能 平衡을 가져옴으로 治癌 效果의 上昇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註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종양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P.1
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304
3. 精校 黃帝內經 : 上揭書, P.336
4. 錢伯文 : 腫瘤的辨證施治,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0, P.4

5. 張代釗：中西醫 結合治療癌症，山西，山西人民出版社，1984，P.34
6. 張代釗：上揭書，P.11
7. 黃耀榮 주원：中國醫學百科全書 中醫外科學，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5，p.34
8. 精校 黃帝內經：上揭書，P.69
9. 精校 黃帝內經：上揭書，P.169
10. 高令山：中西醫結合治療癌症的研究，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0，P.37
11. 精校 黃帝內經：上揭書，P.69
12. 精校 黃帝內經：上揭書，P.318
13. 精校 黃帝內經：上揭書，P.169
14. 精校 黃帝內經：上揭書，P.33
15. 徐大春：難經經釋，北京，北京中國書店，1985，55難
16. 陳自名：校注 婦人良方，江西，江西人民出版社，1985，P.450
17. 李中梓：醫宗必讀，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7，P.215
18. 劉正才：中醫免疫，北京，重慶出版社，1983，P.9
19. 精校 黃帝內經：上揭書，P.45
20. 精校 黃帝內經：上揭書，P.263
21. 精校 黃帝內經：上揭書，P.69
22. 精校 黃帝內經：上揭書，P.340
23. 精校 黃帝內經：上揭書，P.336
24. 精校 黃帝內經：上揭書，P.319
25. 陳實功：外科正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238
26. 曹孝忠：聖濟總錄 下券，臺灣，新文豐出版公社，1978，P.1013
27. 朱震亨：丹溪心法，北京，北京市中國書店出版社，1986，P. 84
28. 精校黃帝內經：上揭書，P.188
29. 李岩：腫瘤病，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6，P.3
30. 洪元植 譯：現代 中共의 癌治療，서울，癸丑文化社，1988，P.381
31. 洪元植 譯：上揭書，P.382
32. 王緒鰲：腫瘤 治療運用扶正培本法則的幾問題，浙江，浙江中醫學報，1985년 第 9卷 第 3 期，P.4
33. 李中梓：上揭書，P.215
34. 張介賓：景岳全書，서울，麗江出版社，1985，P.479
35. 李中梓：上揭書，P.6
36. 何任：腫瘤扶正祛邪治法의 測，浙江，浙江中醫學院，1985，第9卷 第1期，P.1
37. 劉正才：上揭書，P.13
38. 劉正才：上揭書，P.13
39. 精校 黃帝內經：上揭書，P.246
40. 劉正才：上揭書，P.13
41. 精校 黃帝內經：上揭書，P. 27
42. 精校 黃帝內經：上揭書，P.40
43. 精校 黃帝內經，上揭書，P.48
44. 李東垣：東垣十種醫書，서울，大成 文化社，1983，P. 67
45. 李中梓：上揭書，P.6
46. 華陀：中藏經，서울，自由出版社，P.21
47. 孫思邈：備急 千金要方，서울，大成文化社，1985，P.290
48. 張代釗：上揭書，P.11
- 49,50. 宋乃光：孫秉嚴老中醫治癌學術思想簡介，北京，北京中醫學院學報，1985年 第8卷 第5期，P.21
51. 宋乃光：上揭書，P.21
52. 洪元植 編譯：上揭書，P.379
53. 洪元植 編譯：上揭書，P.381
54. 劉正才：上揭書，P.11
55. 精校 黃帝內經：上揭書，P.228
56. 精校 黃帝內經：上揭書，P.347
57. 劉正才：上揭書，P.12
58. 趙鐘寬：免疫에 관한 東洋醫學의 考察，東洋醫學，서울，東洋醫學研究院，第12卷 第 1 號，1986，PP. 19 - 23
59. 劉正才：上揭書，PP.35-36

## 參考文獻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종양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2. 洪元植 校合編纂 : 精校 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3. 洪元植 譯 : 現代 中共의 癌治療, 서울, 영문사, 1980
4. 高令山 : 中西醫結合治療癌症的研究,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0
5. 羅天益 : 衛生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6. 孫思邈 : 備急 千金要方, 서울, 大成文化社, 1985
7. 徐大春 : 難經經釋, 北京, 北京中國書店, 1985
8. 劉才正 : 中醫免役, 北京, 重慶出版社, 1983
9. 李 岩 : 腫瘤病,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10. 李東垣 :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成文化社, 1983
11. 李中梓 : 醫宗必讀,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12. 張大釗 : 中西醫結合治療癌症, 山西人民出版社, 1984
13. 張介賓 : 景岳全書, 서울, 麗江出版社, 1985
14. 曹孝忠 : 聖濟總錄 下卷, 臺灣, 新文豐出版公社, 1978
15. 陣自名 : 校注 婦人良方, 江西, 江西人民出版社, 1985
16. 陣實功 :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17. 朱震亨 : 丹溪心法, 北京, 北京市中國書店出版社, 1986
18. 錢伯文 : 腫瘤的辨證施治,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0
19. 華 陀 : 中藏經, 서울, 自由出版社, 1985
20. 黃耀榮 : 中國醫學百科全書 中醫外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21. 趙鍾寬 : 免役에 關한 東洋醫學의 考察, 東洋醫學,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第12卷 第1號, 1986
22. 宋乃光 : 孫秉嚴老中醫治癌學術史上間介, 北京, 北京中醫學院學報, 第8卷 第5期, 1985
23. 王緒鰲 : 腫瘤治療運用扶正培本治法的幾問題, 浙江, 浙江中醫學院學報, 第9卷 第3期, 1985
24. 何 任 : 腫瘤扶正祛邪治法오測, 浙江, 浙江中醫學院學報, 第9卷 第1期, 1985